

축구

6 2021년 8월 18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항저우AG...새 감독? 유임?

최용수·황선홍·최진철 감독 후보 하마평에
촉박한 일정...김학범 감독에 계속 맡길수도

한국축구는 2020도쿄올림픽을 '절반의 성공'으로 마쳤다. 김학범 감독이 이끈 올림픽대표팀은 조별리그를 2승1패로 통과한 뒤 멕시코와 8강전에서 3-6으로 패해 4강 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아쉬워할 틈이 없다. 2022항저우아시안게임(AG)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축구협회(KFA)는 AG와 올림픽을 연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선호해왔다. '홍명보호'가 2010광저우AG에 이어 2012런던올림픽에 나섰고, '김학범호'가 2018자카르타-팔렘방AG를 거쳐 도쿄올림픽을 치렀다.

KFA는 새판 짜기를 모색하고 있다. 출발점은 항저우AG에 나설 신임 사령탑 선임이다. 김 감독의 계약기간이 도쿄올림픽을 끝으로 만료된 가운데, KFA는 9월 초까지는 새 감독과 코칭스태프를 인선할 계획이다.

축구계의 하마평에는 여러 후보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최용수 전 FC서울 감독, 황선홍 전 대전하나시티즌 감독, 최진철 전 17세 이하(U-17) 감독 등이 대표적이다. KFA 집행부는 이름값이 높은 지도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변수가 있다. 항저우AG의 시간표다. 당장 올 10월에는 싱가포르에서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예선이 열린다. H조에 속한 한국은 싱가포르, 동티모르, 필리핀과 대결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김 감독의 유임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이와 함께 도쿄올림픽 리부가 다음주 시작된다. ▲코칭스태프 대회 결산 ▲TGS 리포트 ▲스포츠과학위원회의 체력준비 보고서 ▲스카우트위원회의 선수 선발 의견 등이다. KFA 행정 파트의 대표팀 지원(캠프·평가 전 등) 보고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출전국들에 일괄 제공한 영상과 김 감독의 개인적 노력에 의존한 도쿄올림픽에는 김판곤 KFA 전력강화위원장과 TSG 위원들이 파견되지 않아 여기에 대한 집중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남정현 기자

25R 제주-울산전 심판 1명 확진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14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25라운드 제주 유니티-울산 현대전의 심판진 가운데 1명이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드러났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따라 해당 경기의 다른 심판들과 심판평가관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17일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그러나 제주와 울산 선수단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고, 향후 예정된 경기도 정상적으로 개최된다.

전북 선두경쟁 불 붙는다



김진수·이주용 합류 전북 양 날개 완전체

풀 트레이닝 소화...오늘부터 실전
완벽 회복 맨 즉시 베스트11 포함
부상 복귀 최철순·셋별 박진성 등
단단해진 스쿼드...출전 조율 고민



최근 홈 3연전을 싸늘이 하며 K리그1(1부) 선두경쟁에 빠르게 가세한 전북 현대가 드디어 완전체 전력을 구축했다. 부상자 전원이 복귀했다.

무엇보다 측면이 훨씬 목직해졌다. 지난해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치료와 재활에 전념해온 국가대표 왼쪽 풀백 김진수(29)와 발가락 골절로 고생하던 이주용(29)이 예정보다 빨리 팀 훈련에 합류했다. 김진수와 이주용은 17일 오전 전북 완주군의 클럽하우스에서 진행된 풀 트레이닝을 거의 다 소화했다. 러닝, 볼 터치, 패스 게임 등으로 가볍게 감각을 조절한 이들은 18일 훈련부터 정상 모드로 전환해 미니게임과 자체 연습게임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무릎 부상을 털어낸 최철순(34)이 최근 팀 훈련에 합류한 만큼 전북은 K리그1에서 가장 완벽한 가까운 측면 진용을 구축하게 됐다. 올 시즌 전반기까지 측면 활용에 고민을 거듭해온 김상식 전북 감독에게는 몹시도 반가운 소식이다.

얼마 전만 해도 전북의 측면 자원은 국가대표 출신 베테랑 오른쪽 풀백 이용(35)과 올해 입단한 '새내기' 박진

성(20)이 전부였다. 오른쪽 풀백 이유현(24)은 올림픽대표팀으로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길었다.

좌우 측면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최철순이 5월말 부상으로 전열을 이탈한 뒤에는 벤치의 근심이 더욱 깊어졌다. 여름이적시장 동안 태국국가대표팀 왼쪽 풀백인 사살락 하이프라온(25)을 임대로 영입한 것도 와해된 측면 보강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 차고 넘치는 스쿼드다. '완벽 회복'이란 전제가 충족되면 김진수와 이주용은 곧바로 베스트11에 포함시켜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들이다. 22세 이하(U-22) 자원인 박진성이 6~7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조별리그를 계기로 폭풍 성장한 터라, 출전시간 배분과 조율이 김 감독의 새로운 숙제가 됐다.

양 날개 재정비를 마친 전북은 포지션 변화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기존의 풀백 자원 대부분이 왕백으로 전진 배치가 가능하고, 사실상 중양 미드필더로도 전환할 수 있어 활용 폭이 넓다. 상대의 전략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무더운 날씨에서 숨 가쁜 일정이 계속되는 8~9월을 잘 넘겨야 한다. ACL까지 소화해야 한다.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간절히 승리를 갈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선수단에 전한 김 감독에게는 즐거운 고민임에 틀림없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주민규, 토종 득점왕 노린다

(제주)



올 시즌 13골로 득점 공동선수에 올라있는 제주 유니티 주민규가 2016년 정조국 이후 5년 만에 K리그1 토종 득점왕으로 등극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현재 13골...라스와 득점 공동 선두
경기당 0.65골...최고의 골감각 과시
정조국 후 5년만에 국내득점왕 도전

K리그 득점왕은 외국인의 전유물처럼 여겨진다. 구단들이 거액을 주고 그들을 데려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10년간 외국인이 차지한 득점왕은 8번이다. 국내 파는 김신욱(2015년·18골)과 정조국(2016년·20골)뿐이다.

5년 만에 국내파의 득점왕 탈환 가능성이 일고 있다. 올 시즌 주민규(31·제주 유니티)의 발끝이 예사롭지 않다. 17일 현재 13골로 라스(수원FC)와 함께 득점 공동선두다.

주민규는 경기당 0.65골(20경기 출전)로 최고의 골감각을 자랑한다. 슈팅 45개 중 23개가 유효슈팅이었고, 그 중 13골이 들어갔다. 그는 제주 구단을 통해 "내가 해결해야만 승리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여짜 보면 부담일 수 있으나, 페이스가 좋다보니 이러한 환경을 즐기면서 결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주민규의 축구인생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2013시즌 연습생 신분으로 고양 FC에 입단해 2시즌 동안 미드필더로 뛰다가 2015시즌 서울이랜드(이상 K리그2)로 이적했다. 당시 그의 잠재력을 높이 산 마틴 레니 감독이 공격수로 포지션 변경을 권유한 것이 '신의 한수'였다. 2015년 23골로 K리그2 득점 2위에 올랐고, 이듬해에도 14골로 또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2017시즌 상주 상무(K리그1)에서도 17골을 기록했다.

자신감이 붙은 그는 우승을 꿈꿨다. 2019시즌 우승 전력을 갖춘 울산 현대에 등지를 틀었다. 하지만 대부분 교체 출전에 그치며 겨우 5골을 넣었다. 팀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 이듬해 그가 선택한 구단은 당시 2부리그 제주였다. 2020시즌 8골을 뽑아 제주의 1부 승격에 크게 기여한 그는 올 시즌 초반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는 등 또 다시 전성기를 맞았다. 주민규는 "최근 컨디션은 서울이랜드나 상무 시절 이상으로 느낌이 좋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사령탑이 남기 일 감독이라는 점이다. 남 감독은 광주FC를 맡던 2016시즌 은퇴 기로에 섰던 정조국을 살려내며 득점왕까지 올려놓았다. 이번에는 주민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아울러 정조국은 제주 코치로 주민규를 돕고 있다. 최근 주장 완장을 찬 주민규는 "공격수라면 득점왕 타이틀에 욕심이 없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팀 승리를 생각할 때다. 팀 승리를 위해서 뛰겠다"고 밝혔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속편하게 양배추 밀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식용유형 : 과채음료 •원산지 : 양배추(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증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